

89.8.16

무용수등 유인 감금

출연료 9백만원 뜯어

【이리=장세환 기자】전북 이리 경찰서는 15일 손아무개(18·고교 3년·이리시 동산동)군을 영리를 위한 약취유인 및 부녀매매, 감금,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손군의 형 손정우(23)씨와 친구 최아무개(18)군을 수배했다.

경찰에 따르면 손군 등은 '아름 프로덕션'을 만들어 놓고 지난 3월 서울 이태원동 오아시스 나이트클럽 무용수 주아무개(20)씨 등 3명을 "대우가 좋은 곳에서 선불 받도록 해주겠다"며 이리로 유인, 여관 등지에 감금했다가 이리시 남중동 맘모스 스탠드바와 창인동 팔도강산 스탠드바에 디스코걸로 출연케 한 뒤 7차례에 걸쳐 받은 출연료 9백2만원을 가로챘다는 것이다.